

“나의 ‘지푸라기’는 데뷔였다”

영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배우 정우성

감염병에 개봉 12일로 연기 영화 ‘보호자’로 연출에 도전 “작품과 주변의 의미 더 커져”

“돈 가장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각기 다른 사연에 모두 밀도가 있었거든요. 그 구성이 마음에 들었죠.”

배우 정우성(47)이 자신이 출연한 영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 영화는 우연히 거액의 돈 가방을 발견한 인물들이 짐승 처럼 변해가는 이야기를 그린다. 돈 가방은 하나지만, 각 인물은 모두 다른 사연과 이유로 그것을 차지하려 한다.

정우성이 연기한 태영은 자신 앞으로 어마어마한 빚을 남긴 채 사라져버린 애인 연희(전도연 분) 때문에 돈이 절실한 필요한 인물. 고리대금업자 협박 앞에서 지절하고 우유부단한 모습도 보여준다.

6일 종로구 삼정동에서 만난 정우성은 “각 인물의 사연이 짧지만 간결하게 설명돼 있었다”고 시나리오 첫인상을 떠올렸다.

“도연 씨(전도연)가 캐스팅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연희가 주는 존재감이 좋았어요. 아무래도, 여성 배우가 중심인 영화가 많지 않잖아요. 그런 목마름도 있었고, 연희 옆에 태영이라는 인물을 두면 볼 만한 영화가 나오겠다 싶었죠.”

태영은 기존 대중이 생각하는 정우성 이미지 또는 정우성이 연기한 다른 인물들과는 분명 거리가 있다.

“시나리오를 읽었더니 태영의 허점이 보였어요. 어둡기도 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경쾌하고 연민이 가득하죠. 절박한 선택에 내몰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약한 건 아니잖아요. ‘정우성’이라고 하면

각인된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멋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같은... 그렇지만 태영이 제 이미지 반전을 위한 캐릭터는 아니었어요.”

연희를 맡은 전도연과 첫 연기 호흡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다만 태영과 연희가 함께 하는 장면이 많지는 않다. 정우성은 “만나는 신(scene)이 많지 않아서 아쉬웠다”고 돌아봤다.

“이 영화가 갖는 아쉬움이자 미덕이죠. 좀 더 긴 호흡을 가지고 만나면 또 다른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관객 입장에서도 두 배우의 케미(케미스트리·조합)를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요.”

전도연에 대해서는 “뜻밖하게 본인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영화에 대한 애정, 책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며 “현장에서 그걸 확인해서 반가웠고, 그렇기 때문에 애정이 가는 동료 배우다”라고 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당초 오는 12일로 예정한 개봉이 연기됐다.

정우성은 “(관객과의) 만남이 중요한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는) 이를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안정된 일상을 찾길 바란다”고 개봉 연기기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올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외에도 ‘정삼화담’ 개봉을 앞둔 정우성은 영화 ‘보호자’로는 그의 꿈이던 연출에 도전한다. ‘보호자’에서는 주연도 맡았다.

“지금 정신이 없어요. 오는 10일 크랭크인인데, 몇 달 전부터 준비는 계속해왔거든요. 빨리 촬영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감독으로서 소통을 잘하고 있다는 자신은 있는데 현장에서 고생시킬 것 같네요. (웃음)”

어느덧 데뷔한 지 26년이 된 정우성은 “전보다 작품과 그 주변의 의미가 더 커졌



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전엔 한 작품이 함께 작업한 사람들과 개인적인 의미였다면, 얼마 전부터는 산업의 의미에서 생각하게 돼요. 동료로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을 많이 하죠.”

정우성이 절박한 상황에서 잡고 싶었던 ‘지푸라기’는 무엇이였을까. 그는 “나

의 ‘지푸라기’는 데뷔였다”라고 답했다.

“정말 맨몸이었던 어린 시절에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죠. 그래도 딱딱 딱딱 모든 걸 다 잡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막연한 꿈과 가까운 걸 잡으려고 노력했어요. 데뷔는 지푸라기를 넘어선 구명선이었죠.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절망했던 적은 없어요.”

tvN ‘청춘기록’ ‘비밀의 숲2’ ‘스타트업’ 등 방영

하반기 드라마 라인업 공개

tvN이 ‘청춘기록’, ‘비밀의 숲2’, ‘스타트업’ 등 올해 하반기에 방영 예정인 드라마 라인업을 최근 공개했다.

청춘 성장통을 그리는 ‘청춘기록’은 배우 박보검과 박소담이 주연을 맡는다. ‘닥터스’, ‘사랑의 온도’를 집필한 하명희 작가와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을 연출한 안길호 감독이 뭉쳤다.

웹메이드 장르극으로 시즌2 요청이 뜨거웠던 ‘비밀의 숲’은 조승우, 배우나가 그대로 출연하며 시즌2로 돌아온다. 시즌1에서 치밀한 대본으로 호평을 받은 이수연 작가가 시즌2에서도 대본을 집필한다.

‘스타트업’은 한국의 실리콘 밸리 샌드박스에서 스티브잡스를 꿈꾸며 스타트업에 뛰어드는 청춘들의 성장기에 관한 드라마다. 남주혁, 배우지, 김선호 등이 캐스팅됐으며 박해린 작가, 오창환 PD가 각각 대본과 연출을 맡는다.



비밀의 숲 1

상반기엔 ‘메모리스트’, ‘슬기로운 의사생활’, ‘반의반’, ‘화양연화-살이 되는 순간’, ‘오 마이 베이비’, ‘(아는 건 별로 없지만) 가족입니다’, ‘사이코지만 괜찮아’ 등이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다.

CJ ENM 미디어콘텐츠본부 편성&기획국 이기혁 국장은 “올해 tvN은 드라마에 대규모 투자를 했다. 다양한 소재와 실험적 시도는 여전히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엠넷 예능 ‘너의 목소리가 보여’ 미국 FOX 채널 정규 프로그램으로 제작

올해 말 방영 예정

엠넷 예능 ‘너의 목소리가 보여’ (이하 ‘너목보’)가 미국 폭스(FOX) 채널에서 정규 프로그램으로 제작된다.

CJ ENM은 최근 ‘너목보’ 미국판이 현지 지상파 채널 폭스에서 제작돼 올해 말 방송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계 할리우드 배우 켄 정은 파일럿에 이어 정규 방송에서도 MC를 맡는다. 켄 정은 프로듀서로도 참여한다.

미국판 복면가왕 ‘더 마스크드 싱어(The Masked Singer)’ 제작자 크레이그 플레스티스도 프로듀서로 이름을 올

렸다. ‘너목보’ 미국판 기획과 파일럿 제작에 참여한 엠넷 이선영 CP는 본방송 제작에도 프로듀서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너목보’ 포맷 계약은 대행사를 통하지 않고 CJ ENM과 폭스가 직접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장호 콘텐츠사업부 상무는 “너목보’는 해외 10개국에서 리메이크돼 시즌을 이어가며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만큼 이번 미국판도 분명히 성공할 것”이라고 자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1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 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나쁜사람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5 맛 좀 보실래요
[9]	30 KBS 뉴스	00 꽃길만 걸어요(재) 40 무한리필 샐러드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언니네 샐롱 스페셜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00 살림하는 남자들(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05 제보자들(재)	00 12 MBC 뉴스 20 호기심대장 가토 50 뽀뽀보 모뎀이 놀자 스페셜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전국 TOP 10 가요쇼(재)
[1]	0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캐치 50 KBS 재난방송센터(재)	1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날아라 숲돌이 뉴 비기닝(재)	20 헬로킴즈 동물교실 2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 10 연중기획 -빛고을행복아카데미(재)			00 뉴스브리핑
[3]	10 전라도 매력청(재)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차부착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나쁜사람(재)	
[4]	00 사사건건	00 무한리필 샐러드(재)	00 차종우물 만국 유망기(재)	00 브라보 마이 라이프(재)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00 5 MBC 뉴스 25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00 SBS 오뉴스 35 KBC 저녁뉴스 5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재)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5 오매! 전라도	50 닥터 365 55 시사터치! 따따부따(재)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기생충 아카데미상 수상 특집	50 우아한 모녀	3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꽃길만 걸어요	30 글로벌24 55 옥탑방의 문제아들	55 스트레이트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 9		50 배철수 점	40 낭만닥터 김사부 2
[10]	00 가요무대	10 개는 훌륭하다		
[11]	00 더 라이브 40 저널리즘 토크쇼 J(재)	40 영화가 좋다(재)	00 언니네 샐롱	0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12]	35 KBS 뉴스 45 다큐 인사이트(재)	50 스포츠 하이라이트	20 UHD 특선 다큐 라이프 오브 쟁거루	20 나이트 라인 50 앙코르 고향견문록 스페셜

EBS1

07:00 로보가 폴리	13:00 EBS 다큐프라임	18:00 생방송 특!톡! 보니 하니
07:30 뽀뽀보 뽀로로	13:55 별일 없이 산다	19:00 스파이더맨
08:00 당동명 유치원	14:45 몰랑	19:30 생방송 판다다
08:30 애코와 친구들	14:55 용감한 소방차 레이(재)	20:00 머털도사
08:45 최고다! 호기심딱지	15:10 로보가 폴리(재)	20:30 아옹명명 귀여워(재)
09:00 엄마 까투리	15:25 제로니모 스틸턴의 모험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9:30 윈터블즈	15:55 엄마 까투리(재)	〈마그레브의 골목길 북아프리카
09:40 아옹명명 귀여워2	16:10 최고다! 호기심딱지(재)	-튀니지 연대기〉
10:00 지식의 기쁨	16:25 페퍼 피그(재)	21:30 한국기행
10:30 한국기행(재)	16:40 당동명 친구들-장난감나라의 비밀	〈그 겨울, 내 곁에 1부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00 EBS 뉴스	설국으로 가는 길〉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20 그림을 그려요	21:50 EBS 다큐프라임
12:00 EBS 정오뉴스	17:30 애코와 친구들(재)	22:45 다문화 고부 열전
12:10 다문화 고부 열전	17:45 마사와 곰(재)	23:35 별일 없이 산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10일(음 1월 17일 癸未)

 36년생 양 쪽의 사이에서 입장이 난처해지겠다. 48년생 방심한다면 빈틈을 해집고 들어오는 원인이 생길 수다. 60년생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순조로움을 이룰 것이다. 72년생 합세해야 물리칠 수 있느니라. 84년생 대강 어렵잖아도 틀림없을 것이니 속도를 내자. 96년생 변수가 생겨서 근혹스러워하는 형세이다. 행운의 숫자 : 22, 82	 42년생 김상의 징후가 조용하고 있도다. 54년생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천양지차가 된다. 66년생 진부함을 벗어나려는 과격이 요청된다. 78년생 방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 해야만 성과를 거둘 수 있느니라. 90년생 형편을 감안해서 적절히 처리함이 맞다. 02년생 허울 좋은 명분 보다는 알찬 실속을 차리는 것이 이익이다. 행운의 숫자 : 23, 58
 37년생 김이 고려한 다음에 모색하는 것이 안전하다. 49년생 지수성이 득리로 이룰 것이다. 61년생 해안이 절실하다. 73년생 관행만을 앞세운다면 낭패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 85년생 대신해서 수행할 수도 있다. 97년생 소를 버렸을 때 때를 취한다. 행운의 숫자 : 49, 97	 31년생 괜히 헛고생하면서 시간만 낭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43년생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로 바쁘다. 55년생 기 대에 부응해야 하느니라. 67년생 아니 되는 것을 강행한다면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79년생 소문나지 않게 처리함이 백 번 나을 것이다. 91년생 잔물결이 항해에 주는 역할은 미미하다. 행운의 숫자 : 42, 55
 38년생 일일이 확인해 보라. 50년생 피하려 하지 말고 정면으로 대응하라. 62년생 서로 입장을 맞바꾸어 생각해 보자. 74년생 귀에 거슬릴지언정 삶에 도움이 되는 충고이니라. 86년생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니 지켜보고만 있으면 된다. 98년생 나타날 때까지 예의 주시하라. 행운의 숫자 : 89, 98	 32년생 무리하게 하지 말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4년생 강풍이 불 것이니 우선 은신처로 피하고 보자. 56년생 숨고르기를 하면서 속고해 본다면 선택의 여지는 있을 것이다. 68년생 전후좌우를 잘 살펴보고 조처해야 할 때다. 80년생 실제보다 더 부풀려진 것임을 참고하라. 92년생 완성도의 차원에서 바라보자. 행운의 숫자 : 30, 69
 39년생 긴급한 비상 상황에 이를 수도 있는 기운이 감지된다. 51년생 검증 되지 않았으니 서두를 필요는 없었다. 63년생 끝까지 진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75년생 지금 바로 잡아야 반박하지 않을 것이다. 87년생 하자기 있던 것이 드디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99년생 기회를 만나면 즉시 잡아야만 취할 수 있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20, 65	 33년생 외형상으로는 복잡해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풍부해진 셈이다. 45년생 엄격한 기준이 없다면 부실함을 면치 못한다. 57년생 노력 앞에서는 그 어떠한 화도 비켜갈 것이다. 69년생 본격적으로 일하지 않으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다. 81년생 혁신적인 방안을 도모하라. 93년생 소신껏 처리하자. 행운의 숫자 : 45, 70
 40년생 망설이다가 놓치지 않도록 하라. 52년생 중요한 기회들이니 잘 활용해 보이라. 64년생 함께 나아가 갈 수 있는 마당을 만들자. 76년생 마음만으로는 유한하니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해야만 한다. 88년생 깊이 있게 관찰하려면 찾을 수 있을 것이다. 00년생 부족하다면 좀 보태면 되는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9, 61	 34년생 굳은 마음가짐이라면 충분히 견디어 낼 수 있다. 46년생 능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58년생 활용해 보는 것도 괜찮다. 70년생 살펴보면 여실히 드러나리라. 82년생 여과하지 않으면 많은 문제점을 안고 갈 수 있다. 94년생 소모작으로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행운의 숫자 : 33, 68
 41년생 의문이 생긴다면 풀고 넘어가야만 한다. 53년생 난관과 유혹이 있더라도 이겨내야 한다. 65년생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된다. 77년생 뜻을 명백히 밝혀두는 것이 무탈하다. 89년생 전혀 예상치 못했던 국면으로 전환 될 가능성이 있다. 01년생 가장 급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운의 숫자 : 47, 86	 35년생 들고 도는 세상의 이치를 실감하게 될 것이다. 47년생 단일한 방법으로 임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다. 59년생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71년생 도모하기 위해서 몰입 작업이 활발하다. 83년생 천군만마를 얻음과 같이 흡족하라. 95년생 너무 경직 되어 있지 않나 염려된다. 행운의 숫자 : 15, 89